

광주FC 엄지성

“부상으로 9골에 그쳐 아쉽다 내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것”

K리그2 영플레이어상 후보
“1부 무대로 돌아가 기대 커
더 철저하게 내년 시즌 준비”

광주FC의 엄지성이 부상으로 인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광주 엄지성은 올 시즌 28경기에 나와 9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2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금호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었던 지난해 4골 1도움을 기록한 것에 비해 공격 포인트는 늘었지만 올 시즌을 돌아보면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

8월 27일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을 쉬기도 했던 엄지성은 9월 26일 안산과의 복귀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10월 9일 경남과의 홈패전에서는 시즌 9호골에도 성공했지만 이 경기에서 다시 발목 부상으로 교체됐다. 결국 엄지성은 시즌 최종전에는 나서지 못하고 28경기 출장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37경기를 소화했던 만큼 부상 공백은 엄지성에게 가장 큰 아쉬움이다.

엄지성은 “올해는 부상이 너무 많았다. 작년에는 눈병 때문에 한 경기 빼고 다 뛰었는데 올해는 부상이 많은 해였다. 다 내가 부족한 탓에 부상을 당한 것 같다”며 “내년에는 관리 잘해서 부상 안 당하고 많은 경기 치르면서 골을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또 “부상에서 돌아와 포인트를 올린 부분을 위안으로 삼고 있지만 선수라면 경기를 뛰고 싶은 게 당연하다.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그 기회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줘야 했는데 부상 때문에 작년보다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올 시즌 임원상이 올산으로 떠나면서 2년 차 어린 선수인 엄지성은 팀의 '에이스'로 주목을 받았다. 프로 2년 차 선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올 시즌 공격포인트를 늘린 건 고무적이다.

엄지성은 “작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을 더 보여드릴 것 같다. 골도 더 많이 넣을 것 같다. 형들이 잘 도와주셔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형들에게 감사하다”며 “작년에는 1년 차이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시기였다면 올해는 2년 차로 지난해 경기하면서 느꼈던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했다. 아직 멀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갈 길



엄지성

이 멀고, 잘 준비해서 더 높은 위치에서 경기하고,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시즌 다시 1부라는 더 높은 무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기대감도 크다. 그만큼 이번 겨울 더 철저하게 내년 시즌을 준비할 생각이다.

엄지성은 “내년 시즌은 재미있을 것 같다. 2부에서 올해 경기하면서 1부 경기도 많이 봤다. 팬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올 시즌 원상이 형하고 경기를 못했으니까 같이 경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내가 공격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더 보완시키려고 하겠다. 첫 번째로 발목 강화, 보강 운동을 해서 치료를 잘한 다음에 그 부분을 채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1, 마지막 생존 경쟁 치열

승강플레이오프 확대로
최대 3개 팀이 2부 추락
파이널B 3경기 22일 진행

‘생존 싸움’을 위한 K리그1의 마지막 경쟁이 펼쳐진다.

K리그1이 22·23일 최종 3라운드 대결을 갖고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한다. 7·12위팀으로 구성된 파이널B 3경기가 22일 진행되고, 23일에는 1·6팀이 모인 파이널A 3경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미 우승팀과 최하위팀은 결정됐다. 울산현대가 지난 16일 강원원정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북현대의 6연패를 저지하고 17년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 반면 올 시즌 7승 8무 22패(승점 29)에 그친 성남은 일찌감치 강등 운명을 맞았다.

본격적인 ‘생존 싸움’은 지금부터다. 올 시즌부터는 승강플레이오프가 확대되면서 최대 3개 팀이 2부로 추락할 수 있다.

일단 12위 성남이 최하위로 내년 시즌 2부로 향하게 됐고, 대신 광주FC가 25승 11무 4패(승점 86)라는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 신기록과 함께 우승을 이루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다.

K리그1 11위 팀은 K리그2 2위인 대전하나시티즌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1차전은 26일 오후 7시 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고, 2차전은 K리그1 11위팀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K리그1 10위 팀은 K리그2 경남FC와 FC안양의 플레이오프 승자와 ‘생존 싸움’을 해야 한다.

일단 리그 최종전에서 수원삼성을 만나는 김천상무는 승강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종전에서 승리하더라도 10위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만큼 김천상무는 승강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한다.

수원임장에서는 승강플레이오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김천상무와 치열한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수원은 9위 FC서울과 승점 2점 차 10위. 수원은 이 경기를 이기고 서울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서울은 수원FC와의 최종전을 승리로 장식하면 수원의 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9위에서 올 시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단 지거나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에는 수원의 결과에 따라 서울이 10위로 내려올 수 있다. 득점에서 수원과 41점으로 같기 때문에 서울은 일단 이기고 봐야 하는 최종전을 맞게 됐다.

K리그 대표 라이벌로 꼽히는 서울과 수원이 벼랑 끝에서 최종전을 치르게 됐다. 다득점으로 승리를 노려야 하는 두 팀의 ‘운명’은 22일 오후 3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 2차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필라델피아 필리스 경기 5회에 샌디에이고의 유격수 김하성이 헬멧이 벗겨지도록 홈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하성 ‘폭풍질주’... 역전승 물꼬 텃다

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샌디에이고 8-5 승리 이끌어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1루에서 전력 질주해 홈을 파는 과감한 주루로 대량 득점의 물꼬를 트고 팀 승리에 앞장섰다.

샌디에이고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치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2차전에서 2-4로 끌려가던 5회말 5점을 뺏아내며 8-5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다.

뒤집기의 맨 앞에 김하성이 있었다.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김하성은 5회말 선두 타자로나 필라델피아 우완 선발 투수 에런 놀라의 몸쪽에 떨어지는 싱커를 받아쳐 좌전 안타로 출루했다.

이어 1사 후 오스틴 놀라의 우중간 안타 때 1루에서 홈까지 쉬지 않고 달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홈을 찍고 반격의 신호탄을 쏘았다. 치고 달리기 작전에 따라 안타가 터졌을 때 이미 2루에 도달한 김하성은 무섭게 붙은 탄력을 흠까지 이어갔다.

전날 필라델피아에 단 1안타에 막혀 영패를 당한 샌디에이고는 김하성과 놀라의 안타로 서서히 깨어났다.

이어진 찬스에서 유릭스 프로파르가 우전 안타로 1·3루 기회를 이었고, 후안 소토가 4-4 동점을 이루는 1타점 우익수 쪽 2루타를 날렸다.

또 제이크 크로넬워스의 몸 맞는 공으로 엮은 2사 만루에서 브랜던 드루리의 2타점 중전 안타, 조시 벨의 1타점 우전 안타가 연속으로 터져 샌디에이고는 7-4로 역전하고 주도권을 되찾았다.

샌디에이고 주포 매니 마차도는 7회말 8-4로 벌리는 중월 솔로 아치를 그려 췌기를 박았다.

김하성은 이날 2회 유격수 땅볼, 7회 1사 1·2루

에서 1루수 뜬공을 합쳐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1개를 얻었다.

샌디에이고는 2회초 먼저 넥 점을 주고 나서 공수교대 후 드루리와 벨의 연속 타자 솔로포로 간격을 좁혀 뒤집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두 팀의 NLCS 3차전은 22일 오전 8시 30분 조머스그로브(샌디에이고)와 랭레르 수아레스(필라델피아)의 선발 대결로 열린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1차전에선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전날 디비전 시리즈를 마치고 바로 경기에 나선 뉴욕 양키스를 4-2로 제압했다.

올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이 유력한 휴스턴 선발 저스틴 발랜더는 6이닝 동안 삼진을 11개나 슈어내며 1실점으로 호투했다.

발랜더는 PS 통산 탈삼진 219개로 클레이턴 커쇼(로스앤젤레스 다저스·213개)를 2위로 밀어내고 이 부문 1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손흥민 힘 못쓰자... 토트넘, 맨유에 0-2 완패

손흥민(토트넘)이 폴타임을 소화했지만 맨체스터 원정에서 팀의 두 골 차 패배를 막지 못했다.

손흥민은 20일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골 2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2골 등 공식전 5골 2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이날 슈팅 1회에 그치며 공격 포인트는 추가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브라이턴과의 리그 경기에서 도움을 작성하고, 13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의 UCL 조별리그 경기에선 2골을 터뜨려 최근 상승세를 탔으나 이후 11라운드 에버턴전과 이날 맨유전까지 두 경기 연속 침묵했다.

토트넘은 후반 맨유의 프레드와 브루누 페르난데스에게 한 골씩 헌납하며 맨유에 0-2로 패했다. 최근 공식전 4경기 무패(3승 1무)의 상승세도 마감했다.

이 경기 전까지 7승 2무 1패로 승점 23(골 득실 +10)을 쌓으며 EPL 출범 이후 구단의 '개막 10경기 최다 승점' 기록을 갈아 치운 토트넘이지만



손흥민이 20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2-20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맨유 라파엘 바란을 따돌리고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승점을 올리지 못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아스널(승점 24), 맨체스터 시티(승점 23·골 득실 +23)에 이는 3위를 유지했다.

6승 1무 3패가 된 맨유(승점 19)는 5위에 자리하며 4위 첼시(승점 20)를 바짝 뒤쫓았다.

/연합뉴스